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시온산 같이

(시편 125:1-5)

철의 나라 로마가 멸망한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내적 부패와 문화적 퇴폐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문화적 야만인들로 우글거리는 신 암흑기입니다.

1.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보아도 산은 의연하고 안온하고 동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산처럼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위에 인격의 집을 세운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처럼 하나님 백성을 악인들의 손에서 보호하십니다.

시온산은 믿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 산을 두른 산들은 성도들을 항상 감싸고 계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2절). 거룩한 성을 두른 산들은 성문을 지키는 파수병같이 서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한 그 보호는 영원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2. 악인이 공격해 올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악인의 규가 다 스렀습니다(3절). 이것은 마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속 정부와 세속 사람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속 권력을 교회에 주시지 않고 국가 정부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고 통치자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항상 선만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세속권력에 의해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 시인은 4가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 ① 약속을 믿어라
- ② 기도 하라
- ③ 경고를 받아라
- ④ 축복 하라

3.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독교를 아일랜드에 들여온 St. Patrick는 젊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체포되어 16세에 아일랜드 추장의 노예가 되었다가 6년 후 도망쳤지만,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일랜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Patrick에게는 외부적 보호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6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간직하며 아일랜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할 때 Patrick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Like Mount Zion

(Psalms 125:1-5)

The fact that Rome, which was as strong as iron, eventually fell was not due to any military power but its own inner corruption and cultural demoralization. Our modern society belongs to a new dark age, which is full of cultural barbarians who pursue their own self-contentment.

1. Christians must be like Mount Zion which is unshakeable

Mount Zion is heroic, tranquil, and unshakeable whenever we see it. Whenever God's people trust in the Lord, they can always stand strong like a mountain and not be shaken. Those who build their house upon faith in God cannot be shaken. This security is not simply based on people's faith, but on God who protects His people from wicked hands like the mountains surround Jerusalem. Mount Zion is symbolic of Christians, while the mountains surrounding Mount Zion are symbolic of God's presence, since He is always surrounding Christians (v. 2). The mountains surrounding the holy castle town are like guards at the gate of a castle, protecting it. In the same way, God's protection over us is not temporary but forever. As long as we rejoice in it, His protection will continue forever.

2. When we are attacked by the wicked

In the time of Nehemiah and Ezra, although Jews lived in Israel, the scepter of wicked kings ruled over Israel (v. 3). While God's people were living under His Providence, they were simultaneously ruled by a worldly government. The Lord does not give worldly power to the church, but to the nation's government. Accordingly, we need to obey our country and be responsible to pray for our rulers. Needless to say, a country does not always do what is right. Even the people of God can be corrupted by worldly power. Therefore, the psalmist shows us four countermeasures to this danger.

- (1) Trust in God's promises
- (2) Pray to God
- (3) Receive the warnings
- (4) Give blessings

3. In an unreliable time, we must trust only in God

St. Patrick was a Roman youth who brought Christianity into Ireland. When he arrived at the age of 16, he was taken by an Irish pirate in England and made a slave of an Irish chief. However six years later, he was able to escape. After that, he was called by God to go back to Ireland as a missionary. He never had any guardian to protect him, but he trusted in God. Anytime he went out to preach the gospel, he continued to trust in the Lord, until Ireland had been completely changed by the time of his death at the age of 66.

My beloved Christians!

As the psalmist confessed,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re like Mount Zion, which cannot be shaken but endures forever" (v. 1).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make this faithful confession like the psalm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년 섬김위원 임명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2010년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은 찬양대원과 교회학교 교사를 제외한 모든 섬김위원들과 남녀 서리집사 전원을 임명한다.

오늘 주부와 함께 배부된 2010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

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받아 2010년 한 해 동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일에는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아가페타운 「준공검사」 통과되다

우리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아가페타운 준공검사를 경기도 가평군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금) 드디어 받았다.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깊은 기도와 헌신을 하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호산나전문대학은 대학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호산나전문대학은 우리교회 헌당식때 설립되었다. 설립주체가 교회인만큼 모든 교직원들은 세례교인이어야하며 매일 1회 채플시간을 갖도록 하여 신앙교육을 강화 할 것을

당회는 대학에 건의하였다.

2010년도 절기예배 및 사업계획 확정

2010 목회정책발표회가 12월 4일(금) 아가페타운에서 교역자, 장로 전원 참석하에 열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표어아래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교회 ②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교회 ③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행동지침으로 삼고 2010년도 절기예배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새해에 바뀌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 경배찬송 : 2(6)장, 3부예배 입례송은 42(11)장
-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는 전공자로 하되 Full Time Job을 가진 분은 완전봉사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거마비(車馬費), 또는 학생일 경우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불 할 수 있다.
- 찬양예배시 특별찬양은 찬양위원장·감독·지도목사가 연구검토 후 당회에 보고한다.
- 찬양대원의 연령은 70세까지로 하되 65세 이상은 은빛찬양대원으로

으로 섬길 것을 권면한다.

- 교사 연령은 70세까지로 하되 2011년 부터 시행한다.
- 영아부도 여름성경학교를 갖기로 한다.
- 중·고등부 주일 오후예배를 열도록 연구·보고하기로 한다.
-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은퇴하신 분들의 봉사영역을 개발하기로 한다.
- 청년1부에서 미래지도자 육성차원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배우기로 한다.
- 대청부는 주일에는 교사가, 토요일에는 조장이 담당한다.
- 디아스포라부 회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교구(다락방)에서 품기로 하다.
- 격월로 드리는 구제헌금을 장애인 버스 구입비로 지출토록 하다.
- 올해 성탄헌금의 일부를 사랑의 집이 위치한 가평군 극빈자를 위해 사용한다.
- 부부다락방 모임을 장려한다. 우수 모범 다락방 시상을 연구하기로 하다.
- 전도회·선교회 회장은 임직자(집사, 권사, 장로)로 한다.

2010년 농어촌100교회 운동 · Vision 2020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 - 후원자 접수

2010년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Vision 2020운동 후원자를 접수하고 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우리의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후원하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에 10만원씩 하고 있다.(1/2구좌도 가능하다)

또한 Vision 2020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에 입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일제로 사랑의 온차 운동(혹한기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찾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운동)과 진중세례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 Vision 2020운동 후원금은 장병 1인 세례경비(5,000원 2구좌 10,000원)을 후원하는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교회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하

여 2억3천2백8십6만7천여원을 후원하였고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한 Vision 2020운동을 후원하여 사랑의 온차 나누기 운동에 7천1백5십1만9천원을 후원하였으며 사관학교와 자매결연한 군부대에서의 진중세례식을 집례하였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도 성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1구좌를 십만원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은 1구좌를 오천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선교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은 첫 헌금을 2010년 1월부터 드린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고향과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고 선교사들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소요리 문답1·2부 오늘 성경퀴즈대회 1부 예배 후 801호에서

소요리문답부(지도: 김은수 목사)는 주일1부 예배 후 801호 만나 홀에 모여 후반기 성경퀴즈 대회를 갖는다. 1,2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퀴즈대회에 소요리문답부 수강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호산나학교법인 설립키로

당회는 4일 호산나 학교법인 설립을 추진키 위해 이사회와 설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사회는 이사를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이종윤, 박노철, 김광신, 오정수, 임상현 그리고 교육경력자 1/3이상 규정에 따라 김재진, 이학주, 김광룡, 권혁우, 그리고 개방이사 1/4에 해당하는 세분은 공식으로 남겨두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으로 박노철, 오정수, 김재진, 이동귀, 정병수, 유태서를 각각 임명하였다.

2010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28일(토) ‘2010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시험’이 서울교회 9층에서 있었다.

최종 합격은 지난 12월 4일(금) 본 학교 홈페이지, 전화 및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총 36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등록 12월07일(월) ~ 12월 18일(금)까지 2주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호산나콩된장 출시

베델하우스의 따스한 별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국산 메주콩 100%, 천일염의 재래식 ‘호산나 콩된장’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출시되었다.

매주 오전 수요예배 후 8층 만나 홀에서 판매되며, 전화로 예약하실 수 있고 배달 또는 택배(착불)로도 받아 드실 수 있다. 수익금은 호산나학교의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될 것이다. 가격은 1kg 12,000원이다.

구입문의 및 예약: 02)558-7166



고구총회

소망의 2010년을 바라보며



노환장로 (고구위원장)

2009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구 일꾼 임명을 시작으로 새해 섬김위원들을 임명하는 이 시기에 우리 고구위원회에서 새해에 소망하는 일들을 말씀드리며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자원하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다락방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

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런 요인들은 하나하나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찬 다락방 모임이 될까를 함께 찾아보며,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다락방 모임이 온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고구에서는 고구장 장로와 남녀 고구 간사들이 다락방장들이 보다 원활하게 다락방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 년에 몇 번 돌아오는 금요기도회 날에는 온 고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던 고구 식구들도 만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됨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5월에는 고구 찬양대회를 통하여 고구식구들의 온전한 화합을 이루며 소리 높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있을 바자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교구의 단합된 모습과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은 우리교회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역자 가정탐방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역자



권익숙 목사

살림!

서울교회에 새가족이 된 권익숙 목사입니다. 매주일 얼굴을 대하는 성도님들과 일일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고맙습니다. 서울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 많은 서울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신 교회 앞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때가 되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이나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친절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목사로 부름받기까지 많은 시간동안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은 늘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주었지만 서울교회의 만남은 제게 조금 특별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교육과 교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참 귀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아가페타운에 거주하며 호산나 학

교에서 교목 겸 사감직을 맡게 되었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청년1부를 맡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청득심(耳聽得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 구절처럼, 호산나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 목회하는 소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만남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 양화진

김정제 집사(13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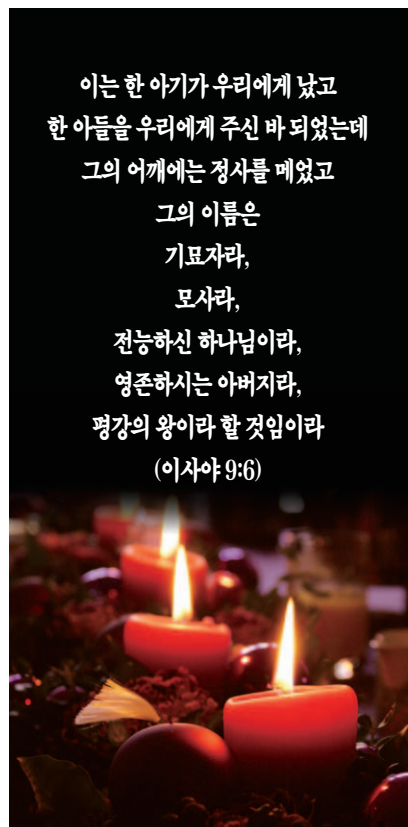
26학기 사도행전반 교우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성령행진’과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강의 해주신 정수길 목사님, 우리와 함께 공부한 현미순 선교사님 내외분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묘원으로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허창범 선교사님의 소명과 영적체험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처럼 우리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미래의 복음 역사를 이루실 것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그곳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교육자 험버트 선교사님과 한국여성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란 캠퍼스 선교사님 그리고 성경번역과 최초의 장로교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밖에 스크랜턴 대부인, 아

펜젤러, 에비슨 가족, 레이놀즈, 해론 선교사님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확신했기에 기꺼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에 빛 진자이며 사랑에 빛 진 자들입니다. 양화진 탐방을 마치고 방문한 절두산 카톨릭 순교자박물관에서 우리는 돌덩이 하나 머리카락하나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기록하는 저들의 역사에 도전 받았으며,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여겼음에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믿음의 계대가 우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이루어져 사도행전 29~30장을 계속 써 나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2010 올 섬길 일꾼들

2010 청년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영찬 성도(청년2부 회장)

저는 2010년 서울교회 청년 2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우영찬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 2부를 이 멋진 파이프 오르간에 비유 하고 싶습니다. 오르간 파이프에는 똑같은 소리를 내는 파이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의 파이프는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 연주자가 어떤 연주를 하는가에 따라서 장엄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엄숙하게, 때로는 생기가 넘쳐 활기차고 다양한 화음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악보에 있는 대로 연주자는 연주를 하는 것이겠지만 연주자가 어떤 자세로 연주에 임하느냐 따라서 똑같은 곡도

다르게 들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청년 2부라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 부터 말씀, 기도로 준비하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온전히 그 뜻만이 청년 2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임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청년 2부(81포레~85포레)여러분,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청년 2부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 청년 2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윤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12월14일(월) 오전 11시 - 서울교회 본당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지난 11월 24일 한장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 27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목사는 그동안 장로교연합사업에 대한 헌신과 지도력을 인정받아 참석자 전원일치로 추대 되었다.

한장총은 개혁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고 분열된 한국장로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1981년 창립된 기구로 26개 장로교단이 연합되어 한국장로교 정체성회복운동, 한국장로교연합사업, 국내외선교사업, 사이비이단대책 및 건강한 교회지원사업 등을 하며 위원회 내에 장로교신학회 등을 두어 장로교에 대한 연구, 발표, 출판 업무를 통해 성경적 장로교 신학을

정립하고 건전한 신학 연구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윤 목사님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장로교가 성경적 개혁주의의 신학 사상에 입각한 장로교로 거듭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한국 교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장로교의 위상을 높이고, 대형 교단과 소형 교단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와 함께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 지난 7월 10일에 처음 실시했던 '장로교의 날' 행사가 장로교단 전체의 기념 축제일로 해마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장총 대표회장 추대 감사예배는 12월 14일(월) 우리교회에서 드린다.

마다가스카르 기독교단체 연합기도모임 결성

-마다가스카르 18개 부족 선교위해 매월 갖는다-

우리교회에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파송한 이재훈 선교사는 현지 시간으로 12월5일 이재훈 선교사 집에서 마다가스카르 기독교단체 대표들이 모여 18개 부족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첫 모임을 열었다.

이번 모임은 아침 조찬 기도회로 모였으며 그동안 마다가스카르 기독교단체들이 일 년에 한차례 정도 모이는 모임은 있었지만 이처럼 특별히 18개 부족 선교를 위해 마다가스카르 단체들이 모인 적은 없었다

고 한다. 앞으로 이 모임을 정례화 하여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아침에 모이기로 하였다.

이재훈 선교사는 이 기도모임을 통해 선교의 불이 더욱 타올라 한국교회가 이기풍 선교사를 그 당시 복음의 오지였던 제주도에 파송하였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수 만개의 마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함께 기도해주도록 기도 요청을 하였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인 소프라노 김문영 집사의 찬양으로 드린다.

김 집사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 음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성악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에 출강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D. 클라이즈 데일 편곡)' 외에 2 곡으로 찬양 드리며 반주에는 김수정 선생(예루살렘찬양대 피아니스트)이 수고한다.

화재·도난예방책

겨울철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와 도난의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교회내 모든 방에서 온열기·커피포트 등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

또한 식당, 지하주차장, 교육실, 찬양대 연습실 등 열린 공간에서는 성도들 각자 도난방지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일(화) 한장총 상임위원장 모임을 소집한다. 9일(수)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회에 참석한다. 11일(목) 장로교 신학회를 소집, 11일(금) 기독교 교도소 이사회 참석, 한장총 신임교단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인전 : 고선옥 권사(13교구) 인사아트센터(12/9-12/15) T. 736-1020
- 이 사 : 공성호 성도 박은주 집사(12교구)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2차아파트 161동 403호
- 개업 : 김요한 성도(14교구, 김재중 집사 이신애 권사 장남) 토모인경점 삼성동 대림아크로텔 102호 T. 554-7741
- 주간식당 봉사 : 에스더전도회(12.6) 한나전도회
- 금주의 식사 : 강영태성도·이연주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서리집사 피택자와 섬김위원회에게 은혜와 열심을 주시기를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험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